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ɪŋ]’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ɪkneɪ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한다.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료, 구조, 방법이 되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 예컨대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되기 적용되어 늘 [국빽]으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빽’이 아니라 ‘밥’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국빽]을 들을 때 된소리되기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된소리되기 이전의 음운 배열인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어를 듣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 영어 단어 ‘bus’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2음절로 바꾸고, ‘b’를 ‘ㅂ’ 또는 ‘ㅃ’으로 바꾸어 [버쓰나 [뻬쓰]로 인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

3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뭉[목]’의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 ② 국어 음운 ‘ㄹ’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다.
- ③ 국어에서 ‘밥만 있어’의 ‘빽만[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다.
- ④ 영어의 ‘spring’이 국어에서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겠다.
- ⑤ 영어의 ‘vocal’이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 ‘v’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ㅂ’이기 때문이겠다.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앞일[압닐]	㉡ 장미꽃[장미꼇]	㉢ 냇고[너코]
㉣ 걱정[걱쟁]	㉤ 굳이[구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써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솟-’, ‘아뢰-’ 등)를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되’, ‘께’)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습-’ 등)를 쓰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 다 솟고 부터되 禮數습고
[이 말 다 아뢰고 부처께 걸 올리고]

<보기 2>

- ㉠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습고져 호노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 須達이 舍利弗의 가 [수달이 사리불께 가서]
- ㉢ 내 이제 世尊의 습노니 [내가 이제 세존께 아뢰니]
- ㉣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니 모시고 갔었어?
- ㉤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덴 없는지 여쭈 보셨다.

- ① ㉠: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② ㉡: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③ ㉢: 조사 ‘되’와 동사 ‘습노니’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④ ㉣: 조사 ‘께’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⑤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쭈’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의미의 유형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와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 동사 어간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는 방법(접-/접히-), ㉡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사랑하-/사랑받-), ㉢ 동사 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주-/주어지-) 등이 쓰인다. 단, '날씨가 풀리다'에서처럼 ㉣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에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용법일 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 ① ㉠: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 ② ㉡: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 ③ ㉢: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 ④ ㉣: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 ⑤ ㉣: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 드리는 시간이지요. 경제 뉴스 록, 김 기자. ㉠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공단에서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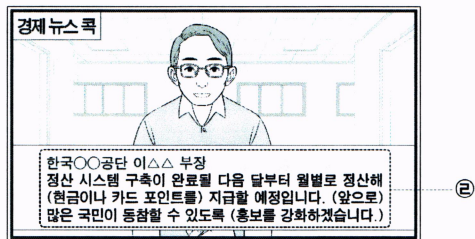


제도 실시 후 석 달 만에 가입자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던 뜻이겠죠. ㉢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칠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백 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천 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이천 원,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오천 원이 적립됩니다. ㉣ 한국○○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자: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자: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국민들의 탄소 줄이기 생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㉔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40.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였다.
 - ② ㉒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③ ㉓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 ④ ㉔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㉕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1. ㉖~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㉖: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였다.
 - ② ㉗: 보조사 '도'를 사용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③ ㉘: 감탄사 '자'를 사용해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④ ㉙: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 ⑤ ㉚: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였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모둠 과제방

오늘 과제로 '경제 뉴스 콕'을 보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해 보기로 한 거 알지? 각자 한마디씩 해 볼까? 모둠장

학생 1: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를 다시 채워 쓰다고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것 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

학생 2: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지. 다회 용기 사용이나 전자 영수증 받기같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어.

학생 3: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알려 준 점에서 의미가 있어.

학생 4: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 주었으면 좋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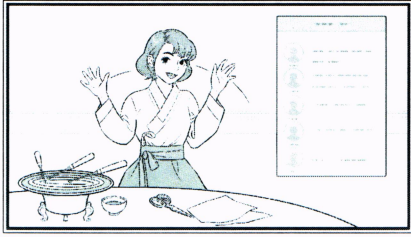
학생 5: 기존에 실시해 온 탄소 포인트 제도도 있나 본데 그 제도는 명칭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새로운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

-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주목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학생 5는 기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3.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 ②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 ③ (가)에 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군.
- ④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하였군.
- ⑤ (가)에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였군.

[44~45]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문화 지킴이들, 안녕!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문화 지킴이 방송의 진행자, 역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과거 궁중 연회에서 장식 용도로 사용되었던 조화인 궁중 채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빛세종: 채화? '화'는 꽃인데 '채'는 어떤 뜻이죠?

[A] 빛세종님, 좋은 질문! 채화의 '채'가 무슨 뜻인지 물으셨네요. 여기서 '채'는 비단을 뜻해요. 궁중 채화를 만드는 재료로 비단을 비롯한 옷감이 주로 쓰였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여 주며) 주로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을 만들었어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햇살가득: 월계화?? 월계화 만들어 주세요!

[B] 좋아요! 햇살가득님이 말씀하신 월계화로 결정! 그럼 꽃잎 마름질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단을 두 겹으로 겹쳐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잘라 줍니다. 꽃잎을 자를 때 가위는 그대로 두고 비단만 움직이며 잘라야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비단만 움직여서. 그래야 곡선은 곱게 나오면서 가위 자국이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기의 꽃잎을 여러 장 만 들어요. 자, 다음은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힌 후, 마름질한 꽃잎에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 주세요. 보셨나요? 녹인 밀랍을 찍어서 꽃잎에 입혀 주면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죠.

폼꼬미: 방금 그거 다시 보여 주실 수 있어요?

[C] 물론이죠, 폼꼬미님! 자, 다시 갑니다.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혀서 꽃잎 하나하나에, 이렇게, 누르기. 아시겠죠?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미리 준비해 둔 꽃잎들을 꺼내며) 짜잔! 그래서 꽃잎을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 이제 작은 꽃잎부터 큰 꽃잎 순서로 겹겹이 붙여 주면 완성! 다들 박수! 참고로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시에서 열릴 예정이니 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은맘: ○○시에 사는데,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 아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ㅎㅎㅎ

[D] 아, 전시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아은맘님 감사! 자, 이제 마칠 시간이예요.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영롱이: 저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ㅠ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오늘부터 언니 팬 할래요. 사랑해요♥

[E] 와, 영롱이님께서 제 팬이 되어 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저도 사랑해요! 다음 시간에는 궁중 채화를 장식하는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 지킴이, 역사임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44.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니, 꽃잎을 미리 준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각해야겠군.
- ② 소규모 개인 방송으로 자원에 한계가 있으니,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군.
- ③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편집을 할 수 없으니,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군.
- ④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매체이니,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해야겠군.
- ⑤ 방송 도중 접속한 사람은 이전 내용을 볼 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야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A]~[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A]: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B]: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발함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③ [C]: '폼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D]: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E]: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